어린이부터 어른까지…'함께하는 팔관회'

부산불교연합회, 9월 10일 걷기대회 · 어울림 한마당

2000여 시민 걷기대회 참가
팔재계 부스 돌며 계율 새겨
팔관회 본행사 10월 21~23일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불교연합회는 9월 10일 부산 어린이대공원 일원에서 '2023 팔관회 걷기대회 및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사진은 선재동자 문화전승단 어린이들이 걷는 모습.

부산불교연합회(회장 보운)가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걷기대회를 통해 불교 대표 계율인 팔재계(八齋戒)를 알리고 생명 가치와 계율 실천을 강조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9월 10일 부산 어린이대공원 일원에서 '2023 팔관회 걷기대회 및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연합회는 이날 부산어린이대공원 내에 팔재계 실천 부스를 8개로 나눠 설치하고 운영했다. 각 부스는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천태종 부산 삼광사, 범어사 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부산 금정산 금용사, 진각종 부산교구청,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태고종 부산종무원이 맡았다.

참가자들은 걷기대회에서 코스를 돌며 각 부스에 방문할 때마다 참가 인증표에 도장을 찍고, 계율에 담긴 의미를 되새겼다. 아울러 참가 보시금을 부스 운영 단체 후원함에 넣어 자비행을 실천했다.

행사를 마무리하며 스님들은 체험부스를 운영한 단체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참가 시민들을 위한 경품 추첨과 흥겨운 어울림 한마당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부산불교연합회장 보운 스님, 수석부회장 영제 스님, 상임부회장 마나 스님, 현강 정사,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범수 스님, 사무부총장 동암 스님, 대각 스님을 비롯해 부산시민 2000여 명이 동참했다.

회장 보운 스님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계율은 지금 이 시대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진리의 가르침"이라며 "때가 아닐 때 먹지 말라는 마지막 계율을 보며 현대인들의 소비를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고 지구촌에 굶어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위해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이번 '걷기대회 및 어울림 한마당'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팔관회 시작을 알렸다. 팔관회 본 행사는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금정총림 범어사 일원에서 진행된다. 21일에는 먼저 선재동자 문화전승단의 팔관재계 수계법회와 마정수기 법회를 영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봉행한다. 이어 22일에는 고려시대 호국의식으로 진행된 팔관회의 정신을 계승해 호국기원법회를 봉행하고 호국을 주제로 진행하는 공연 백희가무가 펼쳐진다. 23일에는 고려복식을 입고서 호국영령위령재와 팔관재계 수계법회를 전통방식으로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11월 11일 오전 11시에 부산 모든 사찰은 호국영령 및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기 위한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에 동참한다. '턴 투워드 부산'은 2007년 캐나다의 빈스 커트니(Vince Courtenay, 한국 전쟁 당시 종군기자)가 제안한 추모행사다. 해당 시간에 부산 지역 각 사찰은 범종과 목탁, 죽비 등을 1분 동안 11타를 치고 경내 모든 사부대중은 유엔공원을 향해 1분간 묵념한다.

"대학생 포교 모범 템플스테이" 한 목소리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4개 대학 불교동아리 템플스테이 개최

부산 · 창원 · 경상 · 동아대 등 학생들이 먼저 선원에 요청
3~4월 체험 당시 호평 받아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이 마련한 템플스테이에서 촛불재 시간에 명상을 체험하는 학생들.

"생각이 많을 때 엉켜있는 생각들을 잘 풀어내고 싶습니다."

젊은 날의 고민을 안고 사는 청춘들이 길을 묻고자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을 찾았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은 9월 9일부터 1박2일간 '명상 특집 여행-대학생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이번 템플스테이에는 부산대, 창원대, 경상대, 동아대 등 부산과 경남의 대학교 불교 동아리에서 활동 중인 대학생 18명이 참석했다. 앞서 3월과 4월 두 차례 진행된 템플스테이에서 도움을 받은 학생들의 요청으로 다시 템플스테이가 마련됐다.

대학생들이 직접 템플스테이를 다시 요청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템플스테이만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 나누기, 염주 만들기, 명상 등 참여형 프로그램과 서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풀어내고 고민에 깊이 공감해주며 해법을 스스로 찾게 이끌어 주는 열린 프로그램이 인기 비결이다.

이번 템플스테이 첫 프로그램은 가벼운 안부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됐다. 대화의 주제는 방학을 보내고 학교에 간 소감, 언제 가장 행복했는지 등이었다. 다양한 참가자들과 1:1 대화를 나누는 동안,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며 마음의 문을 열어갈 수 있었다.

이어진 시간은 명상여행으로 참가자를 3개의 조로 나눠 △공감 토크 △나는 지혜 재생처 △지혜 소통 카드 등 3개의 방을 여행하며 체험하는 코너였다. '공감 토크'는 스님이 참가자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먼저 들어주고 마음을 헤아려주며 한 명 한 명에게 피드백하는 공감의 시간이었다.

'나는 지혜 재생처'는 직접 염주를 만드는 시간. '지혜 소통 카드'는 자신의 습관, 인간관계에 관계된 카드를 선택해 카드에서 묻는 질문에 자신의 속마음을 말하고 서로 지혜로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자리였다. 이어 1시간 동안 진행된 촛불재는 부정적 감정이나 스트레스를 엄마의 마음으로 보살피는 시간이었다.

이혜원 학생은 회향식에서 "명상이 좋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5분도 제대로 못하고 포기한 적이 많았다. 어제 스님 지도로 촛불재 명상 때 마음을 내고 앉아 있었는데 시간가는 줄 모르고 힘든 줄도 몰랐다"며 "명상을 직접 해보니 생활에서도 명상을 습관화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건우 학생은 "이번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은 2년간의 불교동아리 활동 중 가장 의미 있고 완성도가 높았다"며 "청년 대학생 포교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은 "탈종교화 시대에 대학생 청년들은 대한민국 불교의 미래이자 희망이다. 누구나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한마음 관법을 활용한 포교로 불교의 미래를 가꾸어가겠다"며 인재불사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한편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의 템플스테이는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입소문으로 내년 3월 인하대 불교학생회의 참여가 예정되어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불교교육대학 승려교육원이 9월 7일 부산불교교육대학 교육관에서 '붓다볼(싱잉볼) 명상지도사' 과정 개강식을 개최했다.

싱잉볼로 배우는 호흡명상

부산불교교육대학, 싱잉볼 명상지도사 과정 개강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 승려교육원이 9월 7일 부산불교교육대학 교육관에서 '붓다볼(싱잉볼) 명상지도사' 과정을 개강했다. 승려교육원은 앞서 스님들이 각 사찰에서 직접 명상을 지도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싱잉볼을 명상 도구로 활용하는 '붓다볼 명상지도사' 과정을 개설했다.

개강식에는 학장 범혜 스님, 승려교육원 운영위원장 자인 스님, 화엄승가회 수석부회장 대각 스님, 천마사 주지 도명 스님을 비롯해 김기홍 · 김순례 부학장, 김경숙 싱잉볼 치유의소리 대표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했다.

학장 범혜 스님은 개강식에서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춰 포교하는 노력의 결과가 불교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며 "현대인의 마음은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다. 이번 강의는 불교 중흥과 포교를 위한 방안으로 명상을 제시하고자 마련했다. 명상은 치유의 손길로써 현대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운영위원장 자인 스님은 "사찰을 찾는 불자들에게 적용하기에 탁월하고 좋은 강의가 될 것"이라며 "부처님은 의왕(醫王)이셨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신 부처님의 발자취를 느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붓다볼 명상지도사' 과정은 개강 이후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강좌가 이어진다. 장소는 부산 두구동 흥법사 인근에 위치한 사단법인 싱잉볼 치유의소리 센터다. 강의는 붓다볼에 대한 이해와 정화법, 호흡명상, 차크라, 천골 테라피, 숙면을 위한 테라피, 워터 테라피 등 다양한 수업이 이어질 예정이다. 강좌는 6개월간 계속되며 내년 2월 22일 마무리된다. 승려교육원 교육생은 수업과정 후 2급 과정 응시 자격을 얻으며, 응시자격은 출석률 80%이상 참석해야 주어진다.

김경숙 싱잉볼 치유의소리 대표는 "붓다볼이란 명칭은 오래 전부터 사용됐다. 명상의 도구를 넘어서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는 법구(法具)로 소개하고자 한다"며 "스님들의 법구로써 많은 분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제7회 가야명상문화축제 성료

가야문화진흥원, 9월 9일 김해 문화의전당서

김해 가야문화진흥원(이사장 도명)은 9월 9일 김해 문화의전당 마루홀에서 '제7회 가야명상문화축제'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춤, 선차(禪茶) 등 불교문화를 선보였으며, 참석자들이 함께 동참하는 명상 시간으로 진행됐다.

축제는 개회와 더불어 가야문화진흥원 이사장 도명 스님의 인사말로 시작했다. 이어 운광 스님과 무인 스님의 북울림 공연과 매화무용단의 무용극이 펼쳐졌다. 차를 마시며 명상을 하는 선차시연회 이후 '명상의 원리와 생활 실천'에 대한 정목 스님의 법문도 이어졌다.

가야문화진흥원 이사장 도명 스님은 "현대인의 몸과 마음의 병을 치료할 명약이 명상이다. 인간의 욕망을 통제할 유일한 수단이며 명상을 통해 얻는 지혜는 인류를 구원할 희망의 빛으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오늘 명상과 함께한 공연으로 쉼을 얻고 마음이 더없이 평안하시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제7회 가야명상문화축제에서 펼쳐진 선차시연회.

성낙두 경남지사장

